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의 효과성연구*

양 옥 경

(이화여자대학교)

김 연 수

(이화여자대학교)

권 자 영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만족감을 증진시키며, 가족관계를 향상하여 가족의 긍정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1회, 매 2시간씩, 총 8회로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분석을 통해 부모역할 만족도, 양육효능감, 그리고 가족관계 척도를 사용하여 검증되었다. 이를 위해 사전조사, 사후조사, 그리고 종료 3개월 후 추후조사가 각각 실시되었으며,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와 Mann-Whitney U Test가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상자들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부모역할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 자녀양육에 대한 효능감과 전반적 양육능력, 학습지도능력, 그리고 가족관계와 가족 간 수용존중능력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역할능력을 강화하고 가족기능을 증진하는 사회복지실천의 도구로서 유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가족탄력성,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효능감, 가족관계

1. 서 론

부모는 가정의 리더로, 자녀에 대한 양육과 훈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요인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효

3) 본 연구는 2004년도 BK21 뉴가버너스 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았음.

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부모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을 현대 사회의 부모역할 모델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핵가족화 경향으로 인해 부모나 친지의 도움없이 부모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젊은 세대 부모들이 증가하는 등 변화된 부모역할을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그 어느 시기보다 사회적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가족문제의 증가와 급속한 가족해체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아동기 자녀가 있는 빈곤가족, 이혼 등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가족, 장애아동가족, 그리고 청소년의 음주, 비행, 가출 등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에서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부모역할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용석·박명숙, 2000; 윤혜미, 2000; 김미옥, 2001; 남영옥, 2001, 박영희·신혜섭, 2001; 이영호, 2002).

이러한 부모역할교육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가족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가족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들은 내용면에서 볼 때 주로 의사소통훈련을 중심으로 한 부모역할기술의 전달과 교육이 중심이었으며,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보다 중요한 기반을 이루는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신념 등을 다루는 일은 오랫동안 간과되어왔다. 그 결과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관점이 기반이 되지 않은 단순한 부모역할수행 기술의 습득은 지속적인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관계의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기능을 증진하는 부모역할로 내면화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져왔다. 또한 접근방식에서는 부모를 자녀양육기술이 결손된 대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병리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전문가의 일방적인 강의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져 부모들은 단지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전수받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인 부모와 진행자인 전문가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부모들을 능력있는 존재로 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이기숙, 1992; Powell, 1984; 김정원·이기숙,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부모가 지닌 스스로의 강점과 능력을 강조하여 가족과 자녀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록 하며,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와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욕구에 부응하여 최근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강점관점을 바탕으로 부모가 가족과 자녀의 강점과 긍정적 측면을 찾아 개발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며,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양육의 방법을 스스로 탐색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양옥경·김연수, 2004). 이 프로그램은 월시(Walsh, 1998)의 가족탄력성 접근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구성된 것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단일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까지만 탐색적으로 연구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임상실천의 도구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개발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양옥경·김연수, 2004)을 부모역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의 B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들을 회기별로 제시하여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중심의 가족복지실천 도구로서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 보급하는데 그 부가적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고찰

1) 부모역할 프로그램

부모역할이란 사회적으로 '부모'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어지는 일련의 행동과업을 말한다. 이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보호와 훈육, 사랑과 지도에 관한 것으로 바람직한 부모역할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아동의 사회화뿐 아니라 건강하고 인간적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에까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Sanders, 1999). 부모역할 프로그램(parenting program)이란 아동 및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부모역할 증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의 기술과 전략들을 부모가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모역할 프로그램⁴⁾으로는 부모-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고든(Gordon, 1970)의 '부모효율성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ET)', 드라이커스(Dreikurs)의 민주적 양육이론과 고든의 부모효율성 훈련의 장점을 종합하여 딩크메이어와 맥케이(Dinkmeyer and McKay, 1982)가 프로그램화한 '체계적 부모역할훈련(System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STEP)',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중심내용으로 하여 비디오를 활용한 교육공학적인 방법을 부모교육 분야에 적용한 팝킨(Popkin)의 '적극적 부모역할(Active Parenting Today: APT)'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했으며, 주로 중산층 가족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황옥자, 1988; 연미희, 1995; 류지후, 1996; 이혜란, 1996). 이외에 국내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2002)의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Empowering Parent Training :EPT)'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대상 자녀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유은희, 1996; 조아미·오부은, 2001; 이영환·나양균, 2002; 이정연·이창숙, 2003; 김경화, 2004), 둘째, 실시 장소에 따라 가정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복지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기

4) 기존의 부모역할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양옥경·김연수(2003) 참조.

반이 되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는 로저스(Rogers)의 내담자 치료법, 행동수정 이론, 그리고 교류분석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있다(유은희·홍숙자, 1998; 김경화, 2004).

2) 부모역할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부모역할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학위논문을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효율성훈련(PET)의 효과성에 관해 연미희(1995)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부모의 의사소통기술이 향상되었고, 권위주의적 가치관이 감소되었다고 하였으며, 이혜란(1996)은 초등학교 3~6학년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와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는 감소한 반면 개인지향적인 언어통제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황옥자(1988)는 체계적 부모역할훈련(STEP)의 효과성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과보호적이고 통제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보다 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어머니의 자아개념 향상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자아수용도가 높아져 점차 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조아미·오부운(2001)은 프로그램 실시 후 참가자의 자녀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자녀의 심리변화가 긍정적, 자발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이영환·나양균(2002)은 교육에 참여한 어머니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인 온정 태도가 향상되었고,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하위영역인 갈등이 감소하고 친밀감이 증진되었으며, 자녀의 감정과 감정표현의 권리에 대한 존중, 자녀의 독특한 기질에 대한 인식, 자율과 독립에 대한 자녀의 욕구수준에 대한 인식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초를 두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김경화(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심리적 자세가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유형으로 변화되었고, 유아의 자아개념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성이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 밖의 연구로는 1990년 ~2001년에 발간된 학위논문 22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물들의 효과를 분석한 이숙영·이윤주·정혜선(2002)의 연구가 있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로서 부모효율성훈련(PET)의 경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태도와 애정·수용적 태도로의 변화가 있었으며, 적극적 부모역할훈련(APT)의 경우에는 양육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향상되었고, 체계적 부모역할훈련(STEP)의 경우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에 효과성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EPT) 프로그램은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독립심 권장태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역할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탄력성에 근거하여 가족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로는 정신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심리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한 이인수(2004)의 연구와 고위험 청소년 군을 대상으로 알코올 및 약물 사용의 감소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Knowlton,

Bryant, Collins, Noe, Strader, and Berbaym, 1998)이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인수(2004)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후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가족의 기능 수행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놀턴 외(Knowlton et al., 1998)의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에 기반을 두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알코올 및 약물사용의 시작 연령이 지연되었으며, 알코올과 약물사용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중재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3) 학령기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역할

학령기는 대개 만 6세에서 12세 사이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기가 이에 해당된다. 아동기는 학교라는 사회집단 속에서 사회적 기능 습득이 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교우관계, 학습, 근면성, 그리고 건전한 자아개념의 획득과 유지가 아동이 성취해야할 주요 발달 과업이다. 이시기의 아동은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또래집단이나 부모 이외의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 등으로 사회적 관계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과된 긴장과 기회, 요구들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부모는 자녀양육에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양옥경·김연수, 2004). 학령기 부모역할에 대해 숙명여대 아동연구센터(1996)는 격려자로서의 역할, 훈육자로서의 역할, 근면성 발달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학습경험 제공자로서의 역할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여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향상하고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역할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가족탄력성의 개념과 구성요인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은 월시(1998)의 가족탄력성 개념들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탄력성(resilience)이란 ‘탄성’, ‘회복력’ 등을 뜻하는 말로서,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 주요 구성요소로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이 있다.

신념체계(belief system)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과정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로서, 가치, 확산, 태도, 편견 및 가정 등이 포함된다. 가족에게 응집력을 제공하며, 가족원들이 위기상황과 역경을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탄력성의 핵심 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성과 영성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은 가족이 하나의 단위체계로서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위기와 역경을 다루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스트레스를 중재하며, 변화하는 가족의 내·외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가족의 구조를 재조직하는 능력을 뜻한다. 의사소통과정(communication process)은 가족기능에 필수적인 것으로, 명료성, 개방적인 정서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과정으로 구성된다.

3.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의 내용

1) 프로그램의 기본 관점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은 생태체계 관점, 강점관점, 그리고 발달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생태체계 관점은 가족을 다양한 사회체계와 연결되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역동체계로서 이해하도록 한다(Germain and Gitterman, 1995). 따라서 부모역할 능력의 강화를 위해 확대가족 및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조직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원칙이 된다. 또한 강점관점에 근거하여 부모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의 강점을 찾고, 이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부모-자녀관계 및 전체 가족 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원칙이다. 즉, 부모 스스로가 자신과 자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임을 강조하여, 자녀에게 가장 효과적인 부모역할의 기술을 부모 스스로가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발달적 관점의 의미는 가족탄력성은 순간의 산물이 아니라 가족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하고 변화, 발전시켜온 결과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적응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뜻한다(Walsh, 1998: 2002).

2)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효능감을 증진하고, 부모로서의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기능을 향상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내·외적 강점과 자원을 찾아 활용한다. 이는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통하여 부모가 자신과 자녀의 개인적 강점, 체계로서의 가족의 강점, 그리고 확대가족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찾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긍정적인 신념체계를 갖는다. 신념체계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의 탄력성에도 중요하므로, 부모가 자신과 가족의 신념체계를 가족의 발달적 과정을 통해 점검해 보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셋째, 가족관계의 질을 높인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을 증진한다. 다섯째, 부모의 자녀양육 및 훈육기술을 향상시킨다. 이는 부모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매개체로서, 잘못된 자녀의 행동에 대해 지침을 제공해주고,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섯째, 부모역할에 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증진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프로그램 구성 내용

본 프로그램은 가족탄력성의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을 기본틀로 개발된 것으로, 부모역할의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표 1>과 같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며,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워크북 형식의 교육자료집을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표 1>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내용

최종 목표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효능감을 증진하고, 부모로서의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기능을 향상한다.		
가족 탄력성	<1회> 부모역할에 적용되는 신념체계와 가족에 대한 시각 점검하기		
신 념 체 계	목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부모 역할에 관한 긍정적 신념체계를 확립한다.	
	진행 순서	1.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2. 진행자 및 참여자 소개 3. 사전검사 4. '부모역할에 적용되는 신념체계'와 '가족과 자녀에 대한 시각 점검하기' 5. 과제부여	진행 내용 * 프로그램 목적 및 전체 일정 소개하기 * 사전검사 실시 및 참여자 소개하기 * 부모 역할에 적용되는 신념체계 살펴보기 *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시각 다루기 * 과제 : '나의 가족과 자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상황과 적용내용 기록해오기
	진행자 역할	*가족에 대한 긍정적 신념체계 및 강점관점의 적용을 다루는 1,2회기는 자기 개방과 상호 토의가 주 진행 방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진행자는 집단진행의 실천기술을 사용하여 참여자간에 활발한 토의와 자기개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체 계	<2회> '가족과 자녀의 강점 찾기' 와 '내 자녀의 발달단계와 행동 이해하기'		
	목표	가족과 자녀의 강점을 인식하고 개발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진행 순서	1. 지난 주 과제 점검 2. 가족과 자녀의 강점 찾기 3. 자녀발달단계와 행동이해 4. 과제부여	진행 내용 *과제를 점검하며 한주간의 적용점 공유하기 *가족과 자녀의 강점을 찾아보고, 자녀 발달단계와 행동에 대해 교육(학령기 아동특성)하기 * 자녀에 대한 평소의 기대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지, 변화가 필요한지 탐색하기 *과제 : '가족과 자녀의 강점 찾기'
진행자 역할	*그동안 강점으로 주목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점들을 가족들의 강점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점의 긍정적 전환을 강조하며, 자녀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는 기대를 하도록 유도한다.		

<표 1> 이어서

조 직 유 형	〈3회〉 '자녀양육 관련 가족규칙 점검하기' / '가족 내의 효과적인 역할분담하기'			
	목표	가족규칙을 융통성있고 적절하게 변화시키도록 하며, 가족 내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진행순서	1.지난주 과제 점검. 2.'자녀양육 관련 가족규칙 점검하기' 3.'가족 내의 역할분담 살펴보기' 4.과제부여	진행내용	*과제를 점검하며 한주간의 적용점 공유하기 *자녀양육에 적용되는 가족의 규칙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논의하기 *가족 내의 역할분담을 살펴보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변화 계획 세우기 * 과제 : '가족규칙과 역할분담의 변화시도하기'
	진행자역할	*가족마다 상이한 가족규칙이 있음을 인식하고, 건강하고 적절한 가족 규칙을 확립하도록 지지하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성원 모두가 가족 내 역할분담을 하도록 한다.		
	〈4회〉 '부모-자녀관계 향상기술' / '부부관계향상기술'			
	목표	친밀한 가족관계를 향상시킨다.		
	진행순서	1.지난 주 과제 점검 2.'부모자녀관계 향상기술' 3.'부부관계 향상기술' 4.과제부여	진행내용	*과제를 점검하며 한주간의 적용점 공유하기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관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들을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알아보고 자신의 가족에게 맞는 효과적인 전략들을 선택해 적용하도록 하기 * 과제: '부모자녀/부부관계 향상 기술 적용하기'
	진행자역할	*부부관계 향상으로 부부가 팀이 되어 자녀양육을 함께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강조하며, 관계향상의 다양한 방법들이 가족 내에서 시도될 수 있도록 지지한다.		
	〈5회〉 '자녀행동 칭찬하기' /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바로잡기'			
	목표	효과적인 자녀 훈육기술을 증진시킨다.		
진행순서	1.지난 주 과제 점검 2.'바람직한 자녀의 행동 칭찬하기'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바로잡기' 3.역할극 4.과제 부여	진행내용	*과제를 점검하며 한주간의 적용점 공유하기 * '자녀행동 칭찬하기'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바로잡기'에 대한 교육 *배운 훈육기술의 원칙을 가지고 각 가족의 자녀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역할극 하기 *과제: '칭찬 및 훈육기술 자녀에게 실행하기'	
진행자역할	*칭찬과 올바른 훈육의 중요성을 참여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칭찬 및 훈육기술의 적용을 시범보이며, 역할극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표 1〉 이어서

		〈6회〉 ‘자녀와 마음 열고 대화하기’	
		목표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킨다.
의 사 소 통 과 정	진행순서	1.지난 주 과제 점검 2.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 교육 3.역할극 4.과제 부여	진행내용 *과제를 점검하며 한주간의 적용점 공유하기 *자녀와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고,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기술들인 나 전달법, 명확한 지침주기, 반영적 경청기술 교육하기 *역할극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연습해보기 *과제 :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실행하기’
	진행자역할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상황들을 참여자들로부터 파악하여 역할극 상황으로 활용하며, 참여자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자녀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7회〉 배우자와 효과적인 대화하기/협력적 문제해결하기	
		목표	가족이 함께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 기 관 리	진행순서	1.지난 주 과제 점검 2.배우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 알기 3.가족이 상호 협력적으로 문제해결하는 기술 4.과제 부여	진행내용 *과제를 점검하여 한주간의 적용점을 공유한다. *배우자와의 효과적인 대화기술 연습하기 *가족이 협력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기술 연습 문제해결의 6단계교육, 가족회의 계획하기 * 과제 : ‘협력적 문제해결 기술 실행하기’
	진행자역할	*부모-자녀관계에서 뿐 아니라 가족성원이 모두 함께 가족관계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기술을 교육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8회〉 ‘효과적인 자기관리하기’	
		목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이를 위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찾고 주변의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 기 관 리	진행순서	1.지난 주 과제 점검 2.‘효과적인 일과 관리와 스트레스관리’ 3.‘효과적인 자원 활용의 기술: 주변의 도움활용하기’ 4.사후검사 5.추후모임 공지	진행내용 *과제를 점검하며 한주간의 적용점 공유하기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방법 찾기: 일과관리와 스트레스관리하기 *주변의 도움을 찾아 활용하기 가족 및 친척, 이웃 등의 자원리스트 만들어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보기 *사후검사 실시하기 *추후모임에 대한 일정 안내하기
	진행자역할	*부모의 자기관리가 효과적인 부모역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자녀에 대한 몰입으로부터 부모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한다.	

〈표 1〉 이어서

		〈추후모임〉	
추 후 모 임	목표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간의 적용과 사후지도를 통해 부모역할능력을 강화시킨다.	
	진 행 순 서	1.추후검사 2.프로그램 종료 후 실천 적 용에서 도움이 된 점 및 어 려웠던 점등을 공유 3.사전, 사후 참여자들의 점 수변화를 개별적으로 알려 줌 4.프로그램 총평가	진 행 내 용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참여자 개별점수를 알려주어 자신의 변화상태 점검하도록 하기.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가족생활과 자녀양육에 적용하면서 어려웠던 점들과 유용했 던 점들을 함께 논의하기 *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하기
	진행자 역할	*추후모임은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뒤에 실시되므로 참여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연락을 취하여 일정을 공지한다. *프로그램 사전 사후의 변화된 정도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설명해준다.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전반부에서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가족과 자녀에 대한 신념체계를 다루어 부모의 관점이 자녀의 단점이나 약점보다는 강점 등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반부에서는 자녀양육에 적용되는 가족의 규칙과 역할분담을 다루어, 보다 융통성 있고 자녀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적절한 규칙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며,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부모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 마지막으로 후반부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며,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내용들은 부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김지신(1994)의 연구결과에서도 강조된 것인데, 부모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나, 자녀발달의 기초지식, 의사소통 그리고 잘못된 행동의 효과적인 지도방법 등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은 내용면에서 볼 때 단순히 부모나 자녀를 치료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들을 제시하기 보다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발견해내고,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새로운 접근의 부모역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이르는 동시에 부모 자신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며 가족체계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법면에서는 진행방식에서 전문가인 진행자와 참여자인 부모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역동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토론위주로 진행되며, 진행자는 참여한 부모 자신들의 양육경험과 기술들을 존중하고 지지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4) 집단진행자

본 프로그램은 가족탄력성과 강점관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며, 부모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

과 집단 진행의 기술이 있고, 부모역할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전문적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부모교육과 상담의 경험이 있는 2명의 사회복지사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4.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선정과 진행과정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B종합사회복지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 능력과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 및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에 지원한 자이다. 프로그램 지원자 가운데 선착순으로 먼저 지원한 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을 구성하였으며, 나머지는 대기자로 하여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 및 프로그램 실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4년 8월 B종합사회복지관의 기관홍보지(9-10월호)와 복지관이 속한 지역구의 소식지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하였으며, 복지관 홈페이지와 관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기간은 8월~9월, 2달간이었으며, 9월 말 신청자는 총 19명이었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에 먼저 지원한 순서에 따라 10명은 실험집단으로, 나머지 9명은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⁵⁾. 통제집단에 소속된 지원자들에게는 실험집단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다음 회기인 2005년 3월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프로그램은 2004년 10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매 회 2시간 동안 총 8회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B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이었으며, 프로그램의 시작 전과 종료 직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시점인 2005년 3월 초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의 최종 분석에는 총 13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실험집단의 경우, 총 8회의 프로그램 가운데 3회 이상 결석을 한 2명의 대상자를 중도탈락자로 제외하였으며, 또한 매회 프로그램에 출석하였으나 마지막 회기에 결석하여 사후조사 자료가 없는 1명을 제외할 수밖에 없어 결국 7명이 되었다.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조사와 추후조사 실시에 참여하지 않은 2명과 조사 자료에 무응답이 많고 응답 항목들에서 일관성 없이 점수 변화의 폭이 큰 1명이 제외됨에 따라 결국 6명이 되었다.

5) 연구대상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배정 하지 않고 선착순에 따라 배정한 것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단지 연구의 목적을 우선시하여 무작위로 집단을 배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에게 집단배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집단을 배정해달라는 복지관의 요구에 따라 선착순으로 집단이 구분되었다.

2) 프로그램 배경설명

프로그램이 실시된 B종합사회복지관은 중산층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분포에서 5세~14세 아동기 연령이 전체 인구의 13%로 성인 외에 가장 높은 인구 군을 차지하고 있다(서초 통계연보, 2003). B종합사회복지관 자체 내의 욕구조사보고서(2001)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다수는 주부인 여성이었으며, 가족구성형태는 응답자의 72.8%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었다. 이들 성인 응답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1순위와 2순위는 자녀교육 및 지도로 자녀교육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초등학생을 가진 가정의 어려움 중에서 자녀양육방법의 어려움, 소질과 특기개발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도 욕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등학생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1.4%가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였고, 이들 가운데 부모님과 이야기 나눌 때 의사소통의 불일치 현상을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도 42.6%나 되어 부모 자녀관계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 인근의 초등학교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이 복지관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5점 만점 척도 가운데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역할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욕구에 부응하여 B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사전·사후·추후 비교연구로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에 무작위배정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유사실험설계이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모집 시 프로그램의 신청순서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어떠한 차이도 두지 않았으며, 연구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의 실시유무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에는 두 집단이 모두 동일한 조건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를 통제하여 연구의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동일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동일한 연령층의 자녀가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를 모두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실험집단과 비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선착순의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 실험집단에 속한 연구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수준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표본의 편중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다면 다른 영역으로서 연구의 내적타당도에 위협이 되는 우발적 사건, 성숙효과, 시험효과, 통계적 회귀 등의 외생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같은 조건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전·사후·추후조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동일 시점에서 각각 실시하였으며, 사전조

사는 프로그램의 실시 직전에,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뒤에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효능감을 증진하고, 부모로서의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최종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부모역할 만족도, 양육효능감, 그리고 가족관계 척도가 사용되었다.

(1) 부모역할 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클레민쇼와 귀두발디(Cleminshaw and Guidubaldi, 1980)의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Parent Satisfaction Scale)를 한국어 표현에 맞게 번안하여 교수 1인과 임상전문가 2인의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4점 리커트식 측정도구로서, 총 50문항,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7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지지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과 관련된 2개 하위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역, 총 30문항이 사용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하위영역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부모역할수행 만족도', 그리고 '일반적 만족도'이며, 개발된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각각 .856, .828, 그리고 .761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부모역할 만족도척도의 신뢰는 Cronbach's alpha = .841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726, '부모역할수행 만족도'는 .645, 그리고 '일반적 만족도'는 .854로 나타났다.

(2) 양육효능감 척도

양육효능감이란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자녀양육의 과업을 완수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스스로의 믿음을 말하며, 측정을 위하여 최형성·정옥분(2001)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전반적인 양육능력(11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7문항), 의사소통능력(9문항), 학습지도능력(6문항), 그리고 훈육능력(4문항)의 5개요인, 총 37문항이며,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이며,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86,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80, 의사소통능력이 .79, 학습지도능력이 .75, 그리고 훈육능력이 .65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양육효능감이 Cronbach's alpha = .924, 전반적 양육능력이 .906,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577, 의사소통능력이 .915, 학습지도능력이 .881, 그리고 훈육능력이 .705로 나타났다.

(3) 가족관계 척도

가족관계에 대한 측정은 양옥경(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구성원들이 상호간에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5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좋을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하위영역은 정서친밀영역(11문항), 인정책임영역(7문항), 그리고 수용존중영역(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문항이다.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05이며,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정서친밀영역이 .9253, 인정책임영역이 .8271, 그리고 수용존중영역이 .7824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가족관계가 Cronbach's alpha = .932, 정서친밀영역이 .898, 인정책임영역이 .882, 그리고 수용존중영역이 .783로 나타났다.

5) 분석방법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를 위해 비모수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례수가 각 10명 미만으로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기에는 사례수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이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서는 Mann-Whitney U test와 X^2 검증이 사용되었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추후점수 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와 Mann-Whitney U test가 사용되었다.

5. 결과분석

1)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일반적 사항

(1) 연령

연구대상자들의 연령과 배우자의 연령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실험집단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8.1세였으며,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41.1세였다. 통제집단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0.8세로 실험집단 참여자들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통제집단에 속한 1명의 참여자의 연령이 51세로 다른 대상자들보다 높은 연령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의 연령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대부분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통제집단 참여자들의 배우자 평균 연령은 42.3세였으며, 실험집단 참여자들의 배우자 연령 평균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연구대상자와 배우자의 연령

항목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U값	Z값	유의도
연령	실험집단(7)	38.14	2.1930	5.79	12.50	-1.251	.211
	통제집단(6)	40.83	5.8452	8.42			
배우자연령	실험집단(7)	41.14	2.7945	7.00	21.00	.000	1.00
	통제집단(6)	42.33	5.4283	7.00			

(2) 기타 사회경제적 배경 및 자녀수

연구대상자들의 결혼상태, 직업, 교육수준, 수입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자녀수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초혼인 기혼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직업은 실험집단의 1명만이 부업으로 part-time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전업 주부들이었다. 교육수준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대졸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교는 기독교 및 천주교, 불교, 그리고 무교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수입은 가구 월 평균 소득 300-400만원부터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500만원 이상 가구의 비율은 실험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수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두 집단의 특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대상자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대부분이 대졸이상이었으며, 직업은 회사원 및 공무원, 사업, 전문직 등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통계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대상자들의 교육수준 뿐 아니라 배우자들의 교육수준 또한 대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가구의 월평균 수입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인근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자녀수는 통제집단의 1명을 제외한 모두가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이들의 가족구성은 모두 부부와 자녀세대로 이루어져 현대의 소자녀 핵가족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사회경제적 배경 및 자녀수

항목	구분	빈도(%)		χ ²	유의도
		실험집단(7)	통제집단(6)		
결혼상태	기혼(초혼)	7(100.0)	6(100.0)	-	-
직업	주부	6(85.7)	6(100.0)	.929	.335
	주부/부업	1(14.3)	-		
교육수준	고졸/전문대졸	-	2(33.3)	2.940	.230
	대졸	6(85.7)	3(50.0)		
	대학원 이상	1(14.3)	1(16.7)		
수입	300-400만원	-	3(50.0)	6.868*	.032
	400-500만원	1(14.3)	2(33.3)		
	500만원 이상	6(85.7)	1(16.7)		
종교	불교	-	1(16.7)	4.282	.118
	기독교/천주교	2(28.6)	4(66.7)		
	무교	5(71.4)	1(16.7)		
배우자 교육수준	전문대졸	-	1(20.0)	1.714	.424
	대졸	6(85.7)	3(60.0)		
	대학원이상	1(14.3)	1(20.0)		
배우자 직업	회사원/공무원	2(28.6)	3(50.0)	.794	.672
	전문직	1(14.3)	1(16.7)		
	사업/자영업	4(57.1)	2(33.3)		
자녀수	1명	2(28.6)	-	2.940	.230
	2명	5(71.4)	5(83.3)		
	3명	-	1(16.7)		

*p<.05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효능감,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1) 부모역할 만족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 부모역할 만족도 점수와 두 집단 간 점수 차이의 유의성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부모역할만족도 평균은 2.6점대, 통제집단의 평균은 2.5점대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역할만족도의 각 하위영역별 만족도인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역할수행 만족도, 그리고 일반적 만족도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점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부모역할 만족도 사전 동질성 비교

구분	항목	집단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순위	U값	Z값	유의도	
	부모역할만족도	실험(7)	2.6429	.2052	7.64	16.50	-.646	.519	
		통제(6)	2.5534	.3161	6.25				
하위 척도	부모-자녀관계만 족도	실험(7)	2.6714	.3093	6.43	17.00	-.575	.565	
		통제(6)	2.7500	.3728	7.67				
	역할수행만족도	실험(7)	2.3571	.2070	7.36	18.50	-.362	.718	
		통제(6)	2.3161	.1472	6.58				
	일반적 만족도		실험(7)	2.4000	.2516	6.00	14.00	-1.014	.311
			통제(6)	2.5333	.2250	8.17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의 두 집단 간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양육효능감 점수의 평균은 두 집단 모두 같은 점수대로 5점 만점 가운데 중간점수인 3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위영역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 양육 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영역,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양육효능감 사전 동질성 비교

구분	항목	집단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순위	U값	Z값	유의도	
	양육효능감	실험(7)	3.3629	.2733	6.64	18.50	-.358	.721	
		통제(6)	3.3649	.5181	7.42				
하위 척도	전반적 양육능력	실험(7)	2.8052	.5565	6.50	17.50	-.501	.616	
		통제(6)	3.0303	.5854	7.58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실험(7)	3.9184	.2840	7.50	17.50	-.504	.614	
		통제(6)	3.8095	.4301	6.42				
	의사소통	실험(7)	3.2063	.7069	6.43	17.00	-.573	.567	
		통제(6)	3.3889	.5103	7.67				
	학습지도능력	실험(7)	3.7143	.0813	7.64	16.50	-.677	.498	
		통제(6)	3.3056	.9511	6.25				
	훈육능력		실험(7)	3.7500	.3535	7.93	14.50	-.950	.342
			통제(6)	3.5417	.4306	5.92			

(3) 가족관계

가족관계 사전점수의 두 집단 간 차이 비교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가족관계 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인 정서친밀영역, 인정책임영역, 그리고 수용존중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가족관계 사전 동질성 비교

구분	항목	집단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순위	U값	Z값	유의도
	가족관계	실험(7)	3.5639	.3377	7.00	21.00	.000	1.00
		통제(6)	3.3594	.6849	7.00			
하위 척도	정서친밀영역	실험(7)	3.5182	.5206	7.43	18.00	-.430	.667
		통제(6)	3.3485	.5703	6.50			
	인정책임영역	실험(7)	4.0238	.2553	6.21	15.50	-.789	.430
		통제(6)	4.0238	.8917	7.92			
	수용존중영역	실험(7)	3.1190	.4162	6.07	14.50	-.940	.347
		통제(6)	3.4444	.8861	8.08			

이상의 동질성 검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효능감, 그리고 가족관계 척도와 각 척도의 모든 하위영역들에서 두 집단 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만족감, 양육에 대한 효능감 및 가족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없는 동질 집단이라 할 수 있다.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 변화 비교

8주간의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조사와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뒤의 추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각각 프로그램 전과 후, 그리고 추후에 어떠한 집단 내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효능감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사전, 사후, 그리고 추후 점수의 평균과 집단 내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점수 간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역할 만족도

실험집단의 전체 부모역할만족도의 평균은 〈표 7〉에서 보듯이 사전점수가 2.6점정도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종결 후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다 상승하였고, 추후점수는 사후점수보다 다소 감소되어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사후-추후, 그리고 사전-추후 간의 점수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집단에 참가한 연구대상자 7명의 점수변화 추이⁶⁾를 살펴보면 사후점수가 사전점수 보다 높게 나타난 대상자가 5명으로 대다수의 참여자들의 부모역할 만족도 수준이

6) 실험집단의 연구대상자 7명 중 사후점수>사전점수인 자가 5명, 사후점수=사전점수인 자가 1명, 그리고 사후점수<사전점수 인자는 1명이었으며, 점수변화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값 $p=.074$ 이었다.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이 부모역할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실험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 사후와 사전점수 비교 시 변화가 없거나 낮게 나타난 2명의 결과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통제집단의 점수는 사전점수, 사후점수 및 추후점수가 모두 2.5점대의 점수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부모역할만족도의 점수변화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사후, 사전-추후 점수변화량에 대한 차이를 Mann-Whitney U Test로 검증한 결과 집단 내 비교결과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없었다. 이에 설명과 표제시는 생략하였다.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점수는 사후에 사전보다 0.3점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였다. 추후점수는 사후점수보다 약간 감소하였지만 사전점수 보다는 여전히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의 점수는 사전, 사후 및 추후에 있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통제집단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자녀의 단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강점을 찾고,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며, 관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실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역할수행영역의 만족도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사후, 추후점수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점수변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프로그램 실시 후에 오히려 조금씩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역할수행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되고, 자녀와의 대화기술, 문제해결기술 등을 배우게 되었지만 이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신감 있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숙지할 시간이 주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변화는 아니었지만 사전보다 추후가 감소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추후점수가 사전 및 사후점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추후점수의 시점이 초등학교 자녀의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2005년 3월 초에 실시되어서 어머니들의 역할수행에 대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다소 증가되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조사결과에 모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⁷⁾.

일반적 만족도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0.6점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추후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사전-사후점수와 사전-추후점수 사이의 변화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 사후, 추후점수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러한 차이는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참여자들에게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의미부여를 하였으며, 부모 역할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자신감을 향상시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

7) 추후조사 종료 후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자녀들이 새 학년에 올라가 학기 초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감 및 불안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을 증진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부모역할만족도의 사전, 사후, 및 추후 변화 비교

항목	집단(N)	평균(표준편차)			Z값		
		사전	사후	추후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
부모역할 만족도	실험집단 (7)	2.6429 (.2052)	2.7810 (.1751)	2.6952 (.1406)	-1.787	-.933	-.542
	통제집단 (6)	2.5534 (.3161)	2.5709 (.2944)	2.5182 (.2317)	-.552	-.420	-.420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실험집단 (7)	2.6714 (.3093)	2.9857 (.2115)	2.8714 (.2214)	-2.232*	-.736	-1.802
	통제집단 (6)	2.7500 (.3728)	2.7685 (.4618)	2.7481 (.3005)	-.408	-.405	-.106
역할수행 만족도	실험집단 (7)	2.3571 (.2070)	2.3286 (.2360)	2.3000 (.2000)	-.324	-.271	-.973
	통제집단 (6)	2.3167 (.1472)	2.3667 (.1633)	2.2167 (.3311)	-.412	-.948	-1.089
일반적 만족도	실험집단 (7)	2.4000 (.2516)	3.0286 (.2927)	2.9143 (.2794)	-2.366*	-1.225	-2.388*
	통제집단 (6)	2.5333 (.2250)	2.5833 (.3970)	2.5926 (.2614)	-.105	-.137	-.316

*p<.05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과 각각의 하위영역의 점수 변화량에 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 양육효능감 평균 점수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점수는 사전점수보다 0.5점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추후점수는 사후점수보다는 다소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사전점수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통제집단의 점수는 사전, 사후 및 추후 점수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러한 변화의 차이는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머니들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녀양육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룰 수 있도록 도움과 자신감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 종료 후 실험집단 참여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강점을 찾고 칭찬하는 기술, 자녀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술, 훈육기술 등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이 보다 넓어져 부모역할수행에 자신감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전반적 양육능력의 경우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0.7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3개월 뒤인 추후조사에서도 높은 점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사후와 추후점수의 이러한 증가는 모두 프로그램 실시 전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사후와 추후점수 모두 사전점수보다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러한 차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부모로서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능력과 자신감을 증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점수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사후 및 추후점수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 영역에 대한 점수는 다른 하위영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소 어머니들이 자녀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후 및 추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역시 점수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의사소통능력에서 실험집단은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0.5점 이상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실험집단 연구대상자의 점수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사전점수보다 사후 및 추후점수가 증가한 대상자는 7명 가운데 4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사후점수가 사전보다 감소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칭찬하는 기술, 나-메세지 사용하기 등 자녀와 효율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술을 학습하여 참여자들의 자녀와의 의사소통능력이 평균점수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며, 과반수이상의 참여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참여자들 가운데 사전점수와 비교할 때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참여자들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종료 후 실험집단에 실시한 인터뷰 내용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참여자들 가운데 의사소통기술 훈련이 실제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자들도 있었으며, 반면에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 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한 자들도 있었다. 통제집단에서는 사전, 사후 및 추후 점수가 큰 변화없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습지도능력영역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 및 추후점수가 모두 4.0점 이상으로 사전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후 및 추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특히 자녀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관심은 프로그램 참여 전부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 지원 동기와 프로그램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사전 기록 자료로부터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에 속한 참여자들의 자녀 학습지도능력이 이처럼 향상된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가장 맞는 학습지도의 방법을 선택해 실시하도록 권장한 것과 자녀가 잘 못하는 점을 계속 지적하기보다는 잘 하는 점을 찾아 칭찬하고 강화해주며,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들에 대해서 보상체계를 사용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방식들을 구체적으로 교육한 것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훈육능력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전 보다 사후, 추후점수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록 점수 변화량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연구대상자 7명 가운데 5명이 사전보다 사후에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4명이 사전점수보다 추후점수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전, 사후, 추후점수가 소폭이지만 일관없이 나타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8〉 양육효능감의 사전, 사후, 및 추후 변화 비교

항목	집단(N)	평균(표준편차)			Z값		
		사전	사후	추후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
양육효능감	실험집단 (7)	3.3629 (.2733)	3.8213 (.3320)	3.7954 (.2931)	-2.201*	-.105	-2.197*
	통제집단 (6)	3.3649 (.5181)	3.3243 (.7338)	3.3153 (.5903)	-.105	-.210	-.405
전반적 양육능력	실험집단 (7)	2.8052 (.5565)	3.5844 (.3922)	3.4935 (.3008)	-2.366*	-.962	-2.371*
	통제집단 (6)	3.0303 (.5854)	2.9697 (.8637)	2.9848 (.6641)	-.677	-.271	-.408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실험집단 (7)	3.9184 (.2840)	4.0408 (.5197)	4.0612 (.4581)	-.258	-.264	-.813
	통제집단 (6)	3.8095 (.4301)	3.6667 (.6979)	3.6667 (.5791)	-.406	-.138	-.677
의사소통 능력	실험집단 (7)	3.2063 (.7069)	3.7758 (.4620)	3.7302 (.3677)	-1.261	-.949	-1.355
	통제집단 (6)	3.3889 (.5103)	3.4815 (.5865)	3.4074 (.5099)	-.921	-.962	-.272
학습지도 능력	실험집단 (7)	3.7143 (.0813)	4.0476 (.3563)	4.0476 (.3563)	-2.047*	.000	-2.232*
	통제집단 (6)	3.3056 (.9511)	3.0556 (.9583)	3.1389 (.9393)	-1.841	-1.342	-1.473
훈육능력	실험집단 (7)	3.7500 (.3535)	3.8371 (.5563)	3.9286 (.4724)	-.791	.000	-.966
	통제집단 (6)	3.5417 (.4306)	3.7500 (.7071)	3.6667 (.4378)	-.957	-.707	-.756

* $p < .05$

이상과 같은 양육효능감의 점수변화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사후, 사전-추후 점수변화량에 대한 차이를 Mann-Whitney U Test로 검증한 결과는 〈표 9〉, 〈표 10〉과 같다. 이는 〈표 8〉에서의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사전-사후 점수 비교 시 실험집단의 전체 양육효능감 점수는 0.4이상, 하위영역인 전반적 양육능력은 0.7이상, 그리고 학습지도능력은 0.3이상의 점수 증가를 보였으며, 이러한 점수변화량은 통제집단의 점수변화량과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추후 점수 비교 시에도 동일 영역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점수 변화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양육효능감의 사전-사후 점수 변화량의 집단 간 비교

구분	항목	집단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순위	U값	Z값	유의도
	양육효능감	실험(7)	.4584	.4696	9.00	7.00	-2.003*	.045
		통제(6)	-.0405	.2909	4.67			
하위 척도	전반적 양육능력	실험(7)	.7792	.6184	9.50	3.50	-2.507*	.012
		통제(6)	-.0606	.3885	4.08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실험(7)	.1224	.4549	7.36	18.50	-.362	.718
		통제(6)	-.1429	.5345	6.58			
	의사소통	실험(7)	.5694	.8659	7.64	16.50	-.647	.517
		통제(6)	.0926	.2268	6.25			
	학습지도능력	실험(7)	.3333	.3600	9.64	2.50	-2.661**	.008
		통제(6)	-.2500	.2527	3.92			
	훈육능력	실험(7)	.1071	.3493	6.36	16.50	-.667	.505
		통제(6)	.2083	.5791	7.75			

*p<.05, **p<.01

〈표 10〉 양육효능감의 사전-추후 점수 변화량의 집단 간 비교

구분	항목	집단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순위	U값	Z값	유의도
	양육효능감	실험(7)	.4324	.4554	9.14	6.00	-2.143*	.032
		통제(6)	-.0495	.2224	4.50			
하위 척도	전반적 양육능력	실험(7)	.6883	.5030	9.57	3.00	-2.586**	.010
		통제(6)	-.0455	.3670	4.0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실험(7)	.1429	.4738	8.00	14.00	-1.010	.313
		통제(6)	-.1429	.4865	5.83			
	의사소통	실험(7)	.5238	.8056	7.93	14.50	-.932	.351
		통제(6)	.0185	.2156	5.92			
	학습지도능력	실험(7)	.3333	.3849	9.50	3.50	-2.557*	.011
		통제(6)	-.1667	.2582	4.08			
	훈육능력	실험(7)	.1786	.5146	7.29	19.00	-.292	.770
		통제(6)	.1250	.3791	6.67			

*p<.05, **p<.01

(3) 가족관계

가족관계 및 각 하위영역별 점수 변화량에 관한 검증결과는 〈표 11〉과 같다. 실험집단의 가족관계는 사전점수보다 사후 및 추후점수에서 모두 0.4점 이상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사이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사전-추후 변화량의 경우는 변화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점수와 비교 시 통계적 유의미성이 산출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점수변화 분포가 달랐기 때문인데 사전점수와 비교 시 사후점수가 증가한 자는 총 6명이었으나 추후점수에서는 이보다 1명이 적은 5명의 점수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비록 통계적 유의미성은 산출되지 않았으나 전체 평균점수의 수준과 사전에 비해 점수가 증가한 대상자가 5명이나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 실시 후 향상된 가족관계가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뒤 시점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에서는 사후 및 추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 실험집단 참여자들의 가족관계가 질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이 가족원 개개인의 강점을 찾고, 가족을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격려했으며,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토론했고 이를 가족생활에서 실행하도록 개입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위영역별로 정서친밀영역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후와 추후점수에서 사전점수보다 높은 점수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경우 비록 통계적 유의미성은 산출되지 않았으나⁹⁾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 및 추후점수 평균이 각각 0.5점, 0.4점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개별점수 변화에서도 사전보다 사후에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대상자가 총 6명, 사전보다 추후에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자가 5명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이 이 영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책임영역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사전-사후 및 사전-추후 간 점수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수용존중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 추후점수는 사전점수로부터 0.4~0.5점 이상 계속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에 반해 통제집단의 점수는 사전보다 사후 및 추후에 평균점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참여자들의 가족관계 중 상호간에 수용하는 능력과 존중하는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의 초반부에서는 가족원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며, 강점을 발견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이러한 개입노력들이 가족원에 대한 수용과 존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성과를 거두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된다.

8)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에서는 전체 집단의 평균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에 기반을 두고 z값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사례들의 값의 증감을 비교하여 값이 증가한 사례의 수와 값이 감소한 사례의 수를 비교하여 z값을 산출하게 된다.

9) $Z = -1.859$, $p = .063$ 으로 나타났다.

〈표 11〉 가족관계의 사전, 사후, 및 추후 변화 비교

항목	집단	평균(표준편차)			Z값		
		사전	사후	추후	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
가족관계	실험집단 (7)	3.5639 (.3377)	3.9405 (.3409)	3.9524 (.3675)	-2.117*	.000	-1.778
	통제집단 (6)	3.5694 (.6849)	3.7778 (.6278)	3.6806 (.5972)	-1.472	-1.461	-1.367
정서친밀 영역	실험집단 (7)	3.5182 (.5206)	4.0260 (.5694)	3.9221 (.3537)	-1.859	-.514	-1.609
	통제집단 (6)	3.3485 (.5703)	3.8485 (.6445)	3.6667 (.8104)	-1.761	-1.511	-1.483
인정책임 영역	실험집단 (7)	4.0238 (.2553)	4.1020 (.3843)	4.2653 (.6921)	-.368	-1.160	-1.355
	통제집단 (6)	4.0238 (.8917)	4.0476 (.7859)	3.9286 (.5696)	-.106	-.742	-.632
수용준중 영역	실험집단 (7)	3.1190 (.4162)	3.5952 (.3831)	3.6429 (.1781)	-2.207*	-.423	-2.120*
	통제집단 (6)	3.4444 (.8861)	3.3333 (.5676)	3.4167 (.5244)	-.954	-1.732	-.680

*p<.05

이상과 같은 가족관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변화량 및 사전-추후 점수변화량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분석결과 수용준중영역에서 실험집단의 점수가 사후에서 0.4이상, 추후에서는 0.5이상 증가한데 반해 통제집단에서는 오히려 사후와 추후 모두에서 감소하여 점수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가족관계 가운데 특히 상호간의 수용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유의미하게 증진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가족관계와 정서친밀영역에서는 비록 실험집단의 점수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점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점수변화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전, 사후, 및 추후 3회에 걸쳐 같은 측정이 반복될 때 시험효과(testing effect)가 나타났을 가능성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성숙 등이 특히 이 영역에서 나타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프로그램 실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모두 같은 조건 하에 있었으므로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이러한 외생변수의 영향력은 통제가 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2〉 가족관계의 사전-사후 점수 변화량의 집단 간 비교

구분	항목	집단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순위	U값	Z값	유의도
	가족관계	실험(7)	.3766	.4008	7.50	17.50	-.501	.617
		통제(6)	.2083	.3395	6.42			
하위 척도	정서친밀영역	실험(7)	.5078	.5665	6.93	20.50	-.072	.943
		통제(6)	.5000	.4444	7.08			
	인정책임영역	실험(7)	.0782	.3026	7.29	19.00	-.298	.772
		통제(6)	.0238	.4082	6.67			
	수용존중영역	실험(7)	.4762	.4657	9.29	5.00	-2.302*	.021
		통제(6)	-.1111	.4036	4.33			

*p<.05

〈표 13〉 가족관계의 사전-추후 점수 변화량의 집단 간 비교

구분	항목	집단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순위	U값	Z값	유의도
	가족관계	실험(7)	.3885	.4256	7.93	14.50	-.931	.352
		통제(6)	.1111	.2381	5.29			
하위 척도	정서친밀영역	실험(7)	.4039	.5251	7.29	19.00	-.287	.774
		통제(6)	.3182	.4293	6.67			
	인정책임영역	실험(7)	.2415	.6089	8.14	13.00	-1.151	.250
		통제(6)	-.0952	.5164	5.67			
	수용존중영역	실험(7)	.5238	.4017	8.93	7.50	-1.947*	.050
		통제(6)	-.0278	.4399	4.75			

*p<.05

6. 결론 및 사회복지실천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강점관점과 가족탄력성 접근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부모들의 자녀양육능력과 역할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상자들은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부모역할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 자녀양육에 대한 효능감과 전반적 양육능력, 학습지도능력, 그리고 가족관계와 가족 간 수용존중능력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부모역할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 양육효능감, 전반적 양육능력, 학습지도능력, 그리고 가족관계 가운데 수용존중 영역은 프로그램 종결 후 3개월 뒤인 추후조사 시점에서도 향상된 능력이 유의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이 이 영역들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부모역할 만족도,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의사소통능력과 훈육능력, 그리고 가족관계 하위영역인 정서친밀영역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과 비교 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실험집단에 속한 개별 대상자들의 사후 및 추후 점수가 사전보다 향상된 자들이 7명 가운데 각각 4~6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프로그램이 이 영역들에서 실천적 효과성을 나타내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대상자의 수가 늘어난다면 통계적 유의미성 또한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으며, 차후 프로그램의 실시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기술, 훈육기술, 그리고 가족간의 친밀감 등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역할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역할수행만족도영역과 가족관계 하위영역인 인정책임영역에서는 유의미한 효과성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였다. 실험집단의 대상자들이 양육효능감 및 전반적 양육능력 등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수행만족도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산출되지 않은 것은 부모 개인의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인정책임영역은 프로그램 실시 전부터 높은 수준의 점수가 산출되어,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이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볼 때 프로그램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역량을 강화하고 양육효능감 및 자신감을 증진하며,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이 가족과 자녀의 강점을 발견하고, 칭찬을 통해 이를 강화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부모 스스로 선택하여 실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및 가족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술과 문제해결기술 등을 교육하여 궁극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의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가 주체가 되어 가족이 스스로의 강점과 자원을 찾고 이를 활용하며, 가족원에 대한 서로의 시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상호간에 애정과 수용존중 능력 및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 실천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심각한 임상적 문제를 지니지 않은 일반 가족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부모의 역할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가족이 보다 탄력적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활용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제와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위기가족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 가족 내의 응집력과 강점을 강화하고, 상호 간에 수용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여 가족이 부모를 중심으로 함께 역경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는 점에서 실천적 유용성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 통계적 검증력이 약한 제한점이 있다. 프로그램이 특정지역 한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효과성을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배정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배정하여 두 집단 간 동기 수준의 차이 등 연구의 내적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점도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더욱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이 프로그램을 여러 다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효과성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청소년기 가족, 다양한 문제나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위기가족에게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과정 중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또는 부부로 구성된 부모집단을 형성하여 프로그램에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실천연구가 더욱 확대 적용된다면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역할능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유용한 도구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화, 2004.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자아개념 및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2): 181-198.
- 김미옥, 2001. “장애아동의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 34-70.
- 김용석·박명숙, 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 김정원·이기숙, 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83-197.
- 김지신, 1994.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내용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1: 85-107.
- 금명자·지승희·이호준·이진은, 2002.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남영옥, 2001.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성격특성이 가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5: 156-184.
- 류지후, 1996. “유아를 위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영희·신혜섭, 2001.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방임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 146-177.
-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002. 『2001 지역사회육구조사보고서』. 반포종합사회복지관.
-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003. 『2003년지역주민육구조사보고서』. 반포종합사회복지관.
- 서초구청, 2003. 『제 15회 서초통계연보 2003』. 서초구청.
- 숙명여대 아동연구센터, 1996. 『현대사회와 부모』.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양옥경, 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8: 117-145.
- 양옥경·김연수, 2003.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회과학논총』 11: 115-147.

- 양옥경·김연수. 2004.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225-261.
- 연미희. 1995. "한국부모에 대한 P.E.T.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성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3(4): 107-120.
- 유은희. 1996. "청소년 자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1-17.
- 유은희·홍숙자. 1998.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6(1): 157-168.
- 윤혜미. 2000. "부모교육과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부모역할만족도 및 체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3: 246-269.
- 이기숙. 1992.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 이숙영·이운주·정혜선. 2002. "메타분석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637-653.
- 이영호. 2002.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기존중감과 대처방식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67-97.
- 이영환·나양균. 2002. "놀이를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자녀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학회지』 5(1): 1-13.
- 이정연·이창숙. 2003. "청소년기 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2): 161-171.
- 이혜란. 1996. "PET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아미·오부운. 2002.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자녀양육 태도 및 자녀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여성가족생활연구』 6: 135-160.
- 최형성·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황옥자. 1988.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개념, 양육태도 및 유아행동지각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9(1): 93-118.
- Cleminshaw, H., and J. Guidubaldi. 1980. "Assessing Parent Satisfaction." pp. 1-23.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ortland, OR) October: 22-25.*
- Dinkmeyer, D., and G. D. McKay. 1982. *The Parent's Handbook: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American Guidance Service.
- Germain, C. B., and A. Gitterman. 1995. "Ecological Perspective." pp. 816-824.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edited by R. Edwards. Washington: NASW Press.
- Gordon, T. 1970.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A Preventive Program and its Effects on Families.* pp. . in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edited by M. Finn. New York: Academic Press.
- Knowlton, J., D. D. Bryant, D. A. Collins, T. D. Noe, T. N. Strader, and M. Berbaum. 1998. "Preventing and reducing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high-risk youths by increasing family resilience." *social work* 43(4): 297-308.
- Powell, D. R. 1984.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arent education: An analysis of program assumptions." pp. 121-139. in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dited by L. Katz. Norwood, N.J.: Ablex.
- Sanders, M. 1999.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Towards an Empirically

Validated Multilevel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Strategy for Prevention of Behavior and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Clinical Child Family Psychology Review* 2(2): 71-89.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Walsh, F. 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 130-137.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esilient Parenting Program

Yang, Ok-Kyung
(Ewha Womans University)

Kim, Yoen-Soo
(Ewha Womans University)

Kwon, Ja-Young
(Banpo Community Service Center)

This study is about the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esilient Parenting Program' based on Walsh's family resilience approach. The program was developed for strengthening parenting self-efficacy and increasing parent satisfaction and family relation as well. The program was practiced once a week for 8 weeks at the B community service center and each session lasted for 2 hours. The participants of the program were 13 mothers of elementary schools who had a need to increase their parenting skills and satisfaction. Among the 13 participants, 7 of them were arrang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6 of them were included to the control group. The scores of the two groups at the point of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test, 3 month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 were analysed and compared through the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 rank test and Mann-Whitney U test. The scales adapted in this study were the Parent Satisfaction Scale, the Parenting Self-efficacy Scale, and the Family Relation Scale. A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increases in the area of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general parent satisfaction, parenting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between the two groups.

In conclusion, the effectiveness and utilization of the program were confirmed. Also, it is verified that the program can be an important tool for strengthening healthy family functioning through the interventions of parents in the field of community based social work practice.

Key words: resilient parenting program, family resilience, parent satisfaction, parent self-efficacy, family relation.